

가운데는 유제품과 육류, 달걀 생산에 들어가는 가축 사료도 포함된다. 이에 비해 인도인의 평균곡물 소비량은 200kg에 그친다.

△식수문제=독일 지구과학 천연자원연구소의 아르트 밀러는 "195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식수를 뿔아 올리는 양은 인구증가 속도보다 2배나 빨리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동·식물=월드 워치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지구는 대량 멸종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환경 악화로 다양한 생물체가 소멸되고 있다. 대략 1천종의 동·식물이 매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만약 자연적인 상태라면 이같은 멸종 동·식물은 연간 1-10종에 그칠 것이다. 전세계의 포유류 4천400종 가운데 11%가량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97년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조사한 24만2천종의 식물 가운데 14%인 3만 3천종 가량이 주로 주택, 도로, 공장 건설로 인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산림=1980-1995년에만 멕시코 크기에 해당하는 2억ha의 산림이 파괴됐다. 목재는 주로 연료, 종이, 주택건설에 쓰여지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유럽과 일본, 미국이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3분의 2를 소비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이산화탄소의 집중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130년 전 기온관측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98년 지구 기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0년 이후 지구기온은 무려 14차례나 최고 기록을 나타냈으며 98년 기온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해양의 평균 수온은 섭씨 0.5도 정도 올라갔다. 주된 원인은 자연이 소화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산화탄소 방출이다. 20세기에 인류는 석유제품 8천억배럴을 태워 대기 중으로 날려 보냈다.

에너지 소비는 100년 동안 10배로 증가했다. 각 개인은 1900년에 비해 평균 2.5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예컨대 독일인 한 사람은 중국인에 비해 4배나 많은 11t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낸다.

△사막화=지구온난화, 산림파괴, 과도한 경작지 이용,

그릇된 관개방법으로 인해 해마다 스위스 면적의 경작지가 사라진다. 사막화의 확대로 9억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오존구멍=남극 상공의 오존 구멍이 지난 98년 9월 사상 최대치인 2천 500만km²에 달했다. 이는 북미대륙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얕아진 오존층은 태양광에 포함된 유해광선을 차단하지 못한다.



오존층 보호 개도국 재정지원 합의

지구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세계 129개국 대표들은 지난 12월 3일, 개도국들이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유엔 주관하에 5일간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 향후 3년간 개도국들의 오존파괴가스 사용 중단을 위해 지원기금을 4억7천500만 달러 규모로 확충하는데 합의했다.

개도국들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오존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냉장고나 에어컨등에 사용되고있는 CFC 가스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해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환경협약 담당관인 마다바 사르마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향후 가장 중요한 조치는 개도국들이 CFC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9년 165개국이 서명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아울러 선진국들에 대해 메틸 브로마이드의 사용을 2005년까지,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각각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비정부기구(NGO)들은 그러나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에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하는 한

편 유럽연합(EU)이 유독성 농약인 메틸 브로마이드의 사용을 당장이 아닌 2002년까지 금지하도록 제안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동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서 오존파괴가스의 주배출국으로 집중 비난을 받은 개최국 중국은 이날 오는 2002년 1월부터 자동차 에어컨에 CFC-12와 같은 오존파괴물질(ODS)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환경보호국(SEPA)은 자동차 공장과 에어컨 제조업계에 지난주 정부의 이러한 금지조치가 시달렸다고 밝혔다.



염화비닐랩서 환경호르몬 대량 검출

일본에서 시판 염화비닐랩으로 싸인 식품을 데운 결과 랩으로부터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환경호르몬)이 식품에 스며드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돼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일본소비자연맹 등 9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환경호르몬 전국시민단체 테이블’은 최근 시판되고 있는 염화비닐랩을 무작위로 2개사 제품을 선택, 주먹밥과 크로켓을 싸서 데운 결과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노닐페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주먹밥 10개와 기름으로 튀긴 크로켓 10개를 A, B 2개 회사(도쿄소재)의 염화비닐랩으로 싸서 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로 우송했다. 식품분석센터는 주먹밥을 30초동안, 크로켓을 15초동안 전자렌지로 데운후 랩을 벗긴 결과 A사 랩의 경우 주먹밥에서는 0.5PPM(PPM은 100만분의 1), 크로켓에서는 1.6PPM의 노닐페놀이 각각 검출됐다. 또 B사의 랩에서는 주먹밥 0.81PPM, 크로켓 2.8PPM의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염화비닐랩과 노닐페놀의 관계와 관련해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염화비닐랩 16종류 가운데 14개에서 노닐페놀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환경호르몬 전국시민단체 테이블’은 이와는 별도로 시판되고 있는 11개 종류의 염화비닐랩을 일본식품분석센터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염화비닐랩으로부터 노닐페놀이 스며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닐페놀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거나 생식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환경 호르몬으로, 공업용 세제의 계면활성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극얼음 나이는 3,300만~3,400만년

남극대륙의 빙판은 3천 300만~3천 400만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대륙의 역사를 조사중인 국제과학자들은 남극 바다 밑 1천m 지하까지 굴착, 지하 암반과 화석식물및 미생물 등을 분석, 조사한 끝에 남극대륙이 3천300만~3천400만 년전부터 생성돼 온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6천500만년 전에는 공룡들이 당시 열대지역이던 남극을 돌아다녔으나 이후 지구의 기온은 평균 6.5도(섭씨) 정도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지구 온난화현상은 공룡시대 이후 계속돼 온 이러한 지구냉각화 추세를 역전시키고 있으며 기온을 적게는 200-300년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영국의 남극탐사사에 참여하고 있는 마크 라벨은 식어가고 있던 지구가 대규모 온난화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남극 생성시기로 되돌아가 빙판이 완전 소멸될 경우 현재 바다 수면이 약 70m나 올라갈 것이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있던 지구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뒤바꿔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되고 있는 남극에 대한 각종 조사자료들은 남극 얼음판의 해빙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